최 종 욱
광주우치동물원 진료수의사
lovnat@hanmail.net

대관령 소녀다희와 어리버리 수의사 총각7(마지막회)

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.

그런데 그 날 오후 강씨 아주머니가 다시 급하게 달려오셨어요. 빨리 와 보라고 해서 부리나케 쫓아 가보니 그 송아지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발이 축 쳐진 채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. 최 수의사님 얼굴을 얼핏 본 순간 파랗게 질려 계신걸 알았어요. 청진기를 가슴에 한참 대보시고는

"아무래도 틀린 모양이야. 더 이상 심장이 뛰질 않아. 어제부터 조마조마 했는데 기어이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. 죄송해요! 아주머니, 좀 더 일찍 서둘러서 고쳐 드려야 했는데..."
"아니 무슨 소리야? 최 수의사. 그럼 내가 더 일찍 말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. 늘상 있는 일이잖아. 최 수의사가 더 기운을 차려야 할 것 같은데..."

"저는 괜찮아요. 아무튼 이 녀석은 제가 처리 할 테니 아주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.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만 더 아프잖아요. 다희야! 너도 오늘은 그만 들어가거라! 죽는 것, 너한테 별로 보여주고 싶진 않구나. 알겠지?"

"네에"

그렇게 힘없이 대답하고 잠시 머뭇거리다 나왔지만 실은 최 수의사님이 어떻게 하나 우사 곁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았어요. 최 수의사님은 그 송아지를 리어카에 직접 싣고 송아지 우사 옆 공터로 가셨어요.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칼(메스)를 가지고 부검을 시작했어요.

부검은 죽은 송아지를 해부를 해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어요.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똑같은 병이 걸리더라도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옷소매로 눈을 자꾸 문지르는 걸 보면 아마 울면서 부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. 그걸 몰래 지켜보면서 '수의사란 직업이 꼭 멋진 것만은 아니구나. 저런 아픔을 다 견뎌내야 하다니.'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저도 내 지켜보면서 함께 눈물이 나오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. '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이 송아지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겠어요? 힘내세요! 아저씨.' 속으로 계속 이렇게 응원하면서요.

소들에게선 봄철에 소똥에서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. 그 냄새는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. 산 고사리나 유채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중독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서 소들이 이상해진다고 해요. 그래서 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혹시?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내요. 봄볕이 좋은 어느 날 최 수의사님과 난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그 냄새의 정체를 한번 찾아내 보기로 했어요.

그래서 우린 아침부터 방목장으로 가는 소들을 뒤따라 나섰지요. 소들은 방목장에 가자마자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고개를 숙이고 푸른 풀들을 마음껏 뜯어 먹기 시작했어요.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저도 배가 고파졌어요. 아무튼 그림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들이었어요. 한참 풀을 먹고 난 소들은 풀밭에 삼삼오오 앉아 쉬면서 되새김질을 하거나 똥을 싸기 시작했어요. 소들은 원래 먹고 나면 잘 싼대요.

"됐다. 이제 가서 똥냄새를 한번 맡아보기로 하자."

우린 일일이 갓 싼 소똥 냄새를 맡아보기 시작했어요. 드디어 우리가 찾던 정체불명의 바로 그 냄새가 나는 똥을 발견했어요.

"야, 찾았다! 바로 이 냄새 맞지? 우사에서 이상하게 풍기던 그 냄새. 그럼 이 녀석이 그 풀을 몽땅 먹은 녀석이구나. 이제 막 먹어선지 냄새가 참 찐하기도 하네. 다희야! 너도 한번 찾아봐. 이 녀석이 이 근처에서 풀을 뜯었으니 혹시 이상한 풀이 있는지 말이야."

우리는 서로 구역을 나누어 샅샅이 그 주변 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. 한참 찾다보니 드디어 그 똥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풀을 발견했어요.

"야, 다희야! 이리와 봐 이 넝쿨 잎에서 똑 같은 냄새가 나는 데 혹시 너 이 풀이 뭔지 아니? 설마 독풀은 아니겠지?"

"아! 그거요. 그 풀은 우리 같은 강원도 산골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다 아는 풀인걸요. 바로 '더덕' 이라는 거예요. 냄새도 찐하지만 그 뿌리를 캐서 요리도 해먹고 약으로도 쓰는 풀이지요. 고추장 발라 더덕구이를 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서 모두가 즐겨 먹는 산나물 이예요."

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

"정말 그렇구나. 소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들 몸에 좋은 풀들을 골라 먹는 거지? 아 오늘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, 역시 다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큰 걸 놓칠 뻔 했어. 아마도 이 풀도 소들이 먹는 걸 보고

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을 거야. 이런 말도 있거든 '소가 먹는 건 사람이 다 먹어도 괜찮다.' 는 오래된 옛말, 당장 캐서 나도 한번 먹어 보아야겠다. 어,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. 그러고 보니 이 풀은 한번 나는 곳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는구나! 그러니 이 풀이 나는 쪽에 자리 잡은 소가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는 걸. 동물들이 좋고 나쁜 걸 본능적으로 알아본다더니 오늘이 바로 그걸 깨달은 날이구나."

"아참, 그러고 보니 아빠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. 가을이 오면 방목하는 소들이 일제히 숲속에 들어가 도토리를 찾아 먹는데요. 그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마치 우뢰와 같데요. 정말 소들은 자기 몸에 좋은 것들을 알아서 찾아먹을까요? 그렇다면 소들은 정말 영리한 가 봐요? 우와! 저도 오늘 정말 좋은 공부했네요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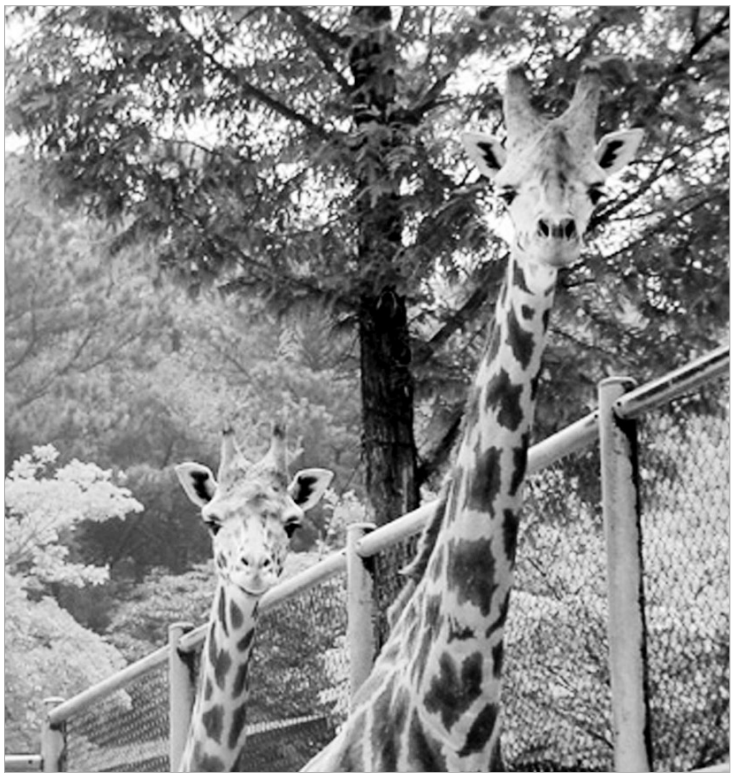
"이러다 우리 다희, 수의사 대신 식물학자 되는 것 아니야? 아무튼 오늘은 이 더덕 좀 캐다가 어머니한테 더덕요리 좀 해 달래자."

"그래요, 더덕은 더덕구이를 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"

그날 저녁 우리는 몸에서 온통 더덕냄새가 풍기도록 실컷 더덕구이를 해 먹었답니다. 저번에 한번 아저씨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 드린 적 있지요? 그 여자친구는 이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.
아저씨는 꽤 서운해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속으로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그때 데려온 개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? 바로 진돗개 두 마리요.
그 진돗개들은 일년쯤 되자 다 커서 아주 귀여운 새끼를 8마리나 낳았어요. 아저씬 그 새끼 전부를 목부 아저씨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. 우리 집도 그 때 암컷 한 마리를 받아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. 그런데 아저씨가 1년하고도 반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떠난 날, 바로 그날 밤에 목장의 일부 못된 아저씨들이 악당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. 세상에 자기들에게 골고루 강아지까지 나누어 준 최 수의사님의 진돗개들을 잡아먹자는 모의였어요. 그리고 다음 날 낮에 몇몇 아저씨들이 기어이 몰래몰래 다가가 두 진돗개들을 잡으려다가, 이미 눈치 챈 영리한 개들은 결국 개 끈을 끊고 산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.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진돗개들은 다시는 목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. 최 수의사님이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신 다음 날, 아저씬 산책을 가기 위해 그 개들부터 찾았어요.

"다희야! 너 혹시 우리 진돗개들 못 받니? 이상하게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네. 혹시 그 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?"

난 한참동안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할 밖에 없었어요.
목장 아저씨들이 그 개들을 잡으려다가 산으로 달아나 버렸다고요. 그 말을 듣고는 한참 아무 말도



없이 얼굴만 뻘게 지시던 아저씨는 그 길로 산으로 개들을 찾으러 뛰어 올라갔어요. 저도 얼른 뒤를 따라 나섰지요.

"진돌아, 진순아"

그 동안 아무리 찾아도 자취도 없던 진돗개들이 아저씨가 부르자 갑자기 산 중턱쯤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. 그런데 그 개들은 아저씨를 봐도 으르렁거리기만 할뿐 다시는 아저씨 곁으로 다가오려 하질 않았어요.

"야, 너희들 왜 그래? 나야 나, 제발 이리와 봐." 하면서 최 수의사님이 한발자국씩 다가갈수록 점점 멀리 뒷걸음질을 치더니 결국 뒤도 안 돌아보고 산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. 개들과는 그걸로 마지막 이별이었지요. 한번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개들은 다시는 사람 곁으로 돌아오지 않나 봐요. 근데 그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한 동안 일어났는데 사무실 주변에 아침에 가보면 꼭 죽은 너구리가 한두 마리씩 놓여 있는 거여요. 너구리를 잡을 수 있는 건 목장에서 진돗개들뿐이고, 사무실 옆을 지켰던 것들이 바로 달아난 그 진돗개들이었으니 분명 산으로 간 그 진돗개들이 저녁에 와서 몰래 놓고 갔을 거라고 모두 같은 추측을 했어요. 혹시 키워 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을까요? 아니면 사람들 배신에 대해 일종의 복수였을까요? 그 해답은 아직까지 누구도 모른답니다. 그 사건 이후로 그 명랑하던 최 수의사님은 목장 사람들하고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. 물론 저와 아빠는 제외하구요. 그리고 가끔

"이제 내려 갈 때가 되었나봐. 영원히 목장식구가 되려 했는데 결국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나봐. 오죽 나를 무시했으면 내 개를 다 죽이려고 했겠니?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소도 소지만 특히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하는데 도저히 배신감이 가시지가 않아."

"아저씨, 아저씨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. 조금만 참으시면 안 될까요? 그 아저씨들이 최 수의사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욕심을 부린 걸 거예요. 그리고 모두 깊이 반성하고 계실 거구요."

저도 그 일에 대해선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그렇게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어이 아저씬 목장을 떠나시기로 결심을 굳히셨어요. 그땐 모두 말을 안 했지만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아무도 나서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. 아저씨가 목장을 떠나시기 전날까지 우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. 아저씬 제가 꼭 멋진 수의사가 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본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고향에서 열심히 동물들 치료하고 있을 테니, 언제든 보고 싶으면 놀러 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어요. 물론 당연히 전 꼭 갈 거라고 대답했고, 그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. 아저씬 이미 제 마음 속에 저를 지켜주시는 키다리아저씨 같은 분으로 자리 잡고 계셨으니까요.

아저씬 떠나는 날도 처음 올라오셨던 그 복장 그대로 어깨에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그대로 목장 버스에 오르셨어요. 그날 역시도 사람들은 모두 바빴고 나와 그리고 엄마, 아빠 우리 세 식구만 읍내까지 바래다 드렸어요. 그 후 우리 식구들도 얼마 안 가 아빠가 횡성읍내에다 작은 수정소를 차리셔서 목장을 떠나게 되었어요. 전 여전히 아빠 보조로 아빠를 따라다니며 수의사의 길을 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젠 고향 동물원에서 야생동물들과 일하시는 아저씨랑 자주 전화로 동물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답니다. 저와 아저씬 열다섯 살 차이에요. 가끔 제가 스무 살 때까지만 결혼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만은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. 마지막 fin~

– 끝 –